CREATION TRUTH NEWSLETTER TU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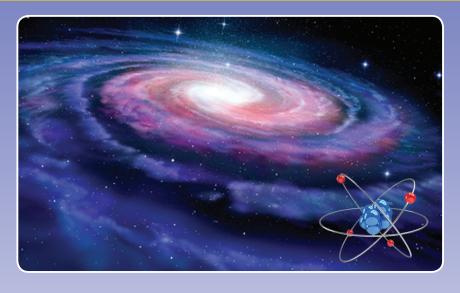
Volume 24 Number 04 **04** 2016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창조, 그리고 빛으로 그 물질 세계를 완성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창조역사이다. 앞선 컬럼(빛은 무엇일까? Creation Truth Vol.23 No.10)에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음을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요소로 우주에 존재하는 힘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힘은 무엇일까?

물질 세계에서 힘은 보이지 않는 실체로 공간과 물질을 통해서 서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만물을 붙들고 있다. 오늘날 우주에는 4개의 기본적인 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힘들은 표에 요약한 바와 같이 서로 매우 다르고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힘	특 성
중력	중력은 매우 먼 거리에서 물체들 사이에 항상 끌어 당기는 힘으로 가장 약하지 만 우주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근원적인 힘이다.
강력	강력은 매우 근 거리(10 ⁻¹³ cm)에 작용하는 원자의 핵을 이루는 강한 힘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핵은 이 힘으로 서로 붙들려 있다. 기본적으로 끌어 당기는 힘이지만 특수 상황에서 반력으로도 작용 한다.
약력	방사성 물질 붕괴시 중성자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힘으로 매우 짧은 거리에 서 말 그대로 약하게 작용하는 힘이다.
전자기력	전자기장의 힘이나 전하 사이에 반력과 같은 전기력과 자기력으로 긴 거리에 작용하지만 강력 보다는 훨씬 약한 힘으로 끌어 당기거나 밀어 내는 힘이다. 이힘이 없다면 물질들의 어떤 화학결합도 일어날수 없다.

이 네 가지가 우주를 붙들고 있는 힘들이다. 그러나 천문우주 분야에 관한한 중력이 가장 중요한 힘이다. 중력은 다른 힘과는 달리 두 개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첫째 중력은 우주와 같이 천문학적으로 먼 거리에 상호 작용한다. 둘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들 사이에 항상 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록 매우 작은 힘 일지라도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의 구조와 조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대폭발(빅뱅)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연주의 과학자들은 비록 현 우주에 존재하는 이 힘들이 서로 뚜렷하게 다르고 고유한 특성을 가졌을지라도 과거한 때 모두가 결합된 하나의 힘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검증된 것은 없지만 빅뱅 초기에 우주의 온도가 엄청 높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온의 상태에서 약력과 전자기력과 강력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힘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이 힘들이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강력이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 전자기력이 그리고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약력이 떨어져 나오게 되어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다.

힘의 가상 분리표(시간과 온도의 스케일)				
상 태	통합된 힘	경과시간	온도(GeV)	
통합된 하나의 힘	중력, 강력, 약력, 전자기력	~ 0초	~ 무한대	
중력의 분리(Planck scale)	강력, 약력, 전가지력	10 ⁻⁴³ 초	10 ¹⁹	
강력의 분리(GUT scale)	약력, 전자기력	10 ⁻³⁵ 초	1014	
약력과 전자기력의 분리		10-11초	100	
오늘날의 우주		10 ¹⁰ 년	10 ⁻¹²	

이 표는 오늘날 이론 물리에서 제안하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온도의 스케일이다. 여기서 강력과 약력 그리고 전자기력의 통합을 추구하는 이론을 통일장 이론 또는 대통합 이론(GUT: Grand Unified Theories)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중력을 더하여 4개의 기본 힘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수퍼통합이론 (Super—Unified Theory) 또는 소위 "모든 것의 이론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반 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이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해왔지만 오늘날 물리학에서 대통합 이론이나 수퍼통합 이론 모두 실험적인 근거가 없다. 역설사 초고온 상태에서 우주의 4가지 기본 힘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주가 그러한 역사를 거쳐왔다고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과학자들은 단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힘들을 파악하고 그 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배워가고 있다. 입자물리에서 입자와 더불어 힘을 존재하게 하는 또 다른 실체(참고: Gluons, W&Z bosons, Photons, Gravitons 등)를 찾으려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지만 왜 우주에 그러한 힘들이 존재하는지…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힘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이 존재하는 것인지 과학은 그 답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구약성경 욥기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타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욥 38:37—38)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힘의 기원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주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1:3)라고 만물을 붙들고 있는 힘의 근원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 과학자들이 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 힘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정교한 균형을 이루는 힘들이 만물을 붙들고 있게 되었는지 대해 과학은 답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늘 사실로 드러난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기원의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답을 제공해 준다

- [1] Davies, Paul (1986), The Forces of Nature, Cambridge Univ. Press 2nd ed.
- [2] Ross, G. (1984). Grand Unified Theories. Westview Press. ISBN 978-0-805-36968-7.
- [3] Stephen W. Hawking's Life Works: The Cambridge Lectures ISBN 1-55800-986-8 Retrieved from "http://en.wikipedia.org/wiki/The_Theory_of_ Everything"
- [4] Weinberg, Steven (1994), Dreams of a Final Theory, Basic Books, ISBN 0-679-74408-8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가 둘인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서로다른이유

창조과학 사역은 단지 창조에 대한 부분 뿐 만 아니라 결국 성경의 무오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학 영역뿐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친 질문을 받을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다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 족보가 다른 이유에 대한 질문은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족보는 겉보기에도 몇몇 사 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특별히 이 두 족보를 보면 얼 듯 보기 에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아버지가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먼저 족보 전체를 보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하향식으로 내 려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로 끝을 맺는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가르치심 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 셉의 위는 헬리요…"로 시작해서 상향식으로 올라가 "아담 그 위는 하나님"으 로 마무리한다. 아브라함부터 두 족보를 비교하면 다윗까지는 서로가 맞아 떨어 지지만 다윗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족보가 이어진다. 마태복음은 다윗 다음으

이 두 족보는 아슬아슬한 두 가지 예언이

로 솔로몬이 등장하며 왕들이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에는 나단이 등장하며 왕 이 아닌 사람들로 이어진다. 마태복음에서 왕들의 이름은 여고냐(=여호야긴. Jeconiah)를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마 1:11). 이는 여고냐의 악한 행동 때문에 다 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시 없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사용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는 그(여고냐)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렘 22:30). 그러므로 여고냐 다음 사람부터는 왕은 등장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의 거의 끝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마 1:16)라고 기록하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 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위는 헬리요"(눅 3:23)라고 하며 요셉의 아버지 가 헬리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므로 언뜻 보면 두 족보에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 셉의 아버지가 둘인 것처럼 보인다.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야곱, 누가복음에서는 헬리인 것이다. 과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실제로 헬리는 2명의 딸을 두고 있었다. 한 딸은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인 마리 아였고. 다른 딸은 세베대의 부인이었다(마 27:56, 요 19:25). 그런데 모세의 법 (민 27:1-11, 36:1-12)에서 기업을 물려 줄 아들이 없을 때는, 사위가 결혼 후에 가계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 와 결혼했을 때, 모세의 법에 따라 헬리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족 보에 합법적으로 등재된 것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보면 요셉의 진짜 아버지 는 야곱이며 헬리는 자신의 장인, 즉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뿐 아니라 다말, 라합, 룻 등과 같은 여성들이 포함 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엄격하게 남자만 기록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 다. 만약에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을 넣을 생각을 했었다면 마리아를 적 어야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는 철저하게 남자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도 사위인 요셉의 이름을 넣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 형태로 볼 때 두 족보는 차이를 보여준다.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의 아버 지'가 되는지(begot, 그리스어로 gennao)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에서 '그 위는'으로 표현되어 있다(영어로 son으로 번역되어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헬라어에는 son이란 단어가 없음). 헬라어 성경 안에서 족보 상 'son(아들)'이 사용된 곳은 23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son)'이니" 라는 한 구절뿐이다. 즉 누가는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여기서도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였으며,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를 통해 누가복음은 사람의 족보를 통해 다윗의 두 아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결국 모두 아브라함까지 이어진다. 즉 마태는 다윗을 통해 내려온 왕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누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 아담을 넘어 하나님까지 이르게 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첫 아담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연결시킨 것이다. 즉 아담 때문에 창조 세계 안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구원자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두 족보는 모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 게서(야곱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좀 더 분명하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as was supposed)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아닌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족보는 아슬아슬한 두 가지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왕 (의 족보)으로 오심과 동시에 동정녀(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절묘한 성취이다. 즉 이 족보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됨과 동시에 성경이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짐을 확인하는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딤후 3:15)

참조

Contradictions: What's in a Father's Name? Bodie Hodge https://answersingenesis.org/bible-timeline/genealogy/whats-in-a-fathers-name

On the genealogies of Jesus http://www.christian-thinktank.com/fabprof4.html

Some supplemental points on the genealogies of Jesus http://www.tektonics.org/gk/jesgen.html

The Curse of Jeconiah and the Signet Ring http://messianicart.com/chazak/yeshua/jeconiah.htm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ACT News

한국사역 / ITCM / 멕시코사역 / 세미나

可叫吃 直对 起子 鬼羽 四利卫 引于

이재만 회장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목포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백동조), 서초 충신교회(배철희), 성광교회(유관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순장(이재훈), 여명학교, 한동대학교, 이랑학교, 나드림 국제학교, 한국 헤비타트 등에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귀국했습니다. 각 세미나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통해 감격했을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다중격변론과 같은 타협이론의 침투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는 일주일간 새벽과 저녁에 걸쳐 13번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첫 세미나부터 마지막까지 교회가 가득 차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중 40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전 세미나에 개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날에는 목포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이 모여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주제로 최근 불고 있는 타협이론의 실체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ITCM 동문

ITCM 妄是회

지난 3월 1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그동안 ITCM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38명의 ITCM들 중에 21명이 참석했습니다. 같은 기수들끼리는 잘 알지만 다른 기수들과는 서로 만나기 힘들었는데 함께 만나 그동안 ITCM을 통해 변화된 삶을 나눌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기도와 교제

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 동문회장으로 고석상(6기)와 총무로 최선희(5기)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ITCM을 위해서 도와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초등부 레띠나

노휘성 강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5회에 걸쳐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 사)에서 초등부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The origin of life', 'Dinosaur', 'Flood, Dinosaur & Ark', 'The origin of the universe', 'The origin of human' 등 기원에 관한 주제들과 노아 홍수를 다루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초등부는 강의의 효과를 높이고 아이들이 경험 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련 활동(activities)을 고안하여 격주로 진행하였는 데, 공룡 이야기를 7C와 함께 엮은 소책자 만들기, 공룡 뼈 맞추기, 운동장에서 노아방주 의 실제 크기재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창세기의 역사를 실제 세 계와 연결지을 수 있도록 세미나의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인도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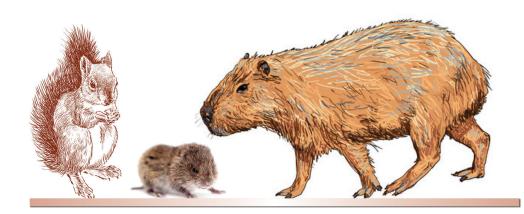
신 크리스티나 어 전도사님과 통역을 담당해주신 김인희 집사 님, 케빈 집사님, 함께 활동을 진행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 사드립니다.

叫八丑 纪正

이동용 박사는 서울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박성근 목사 님께서 섬기시는 멕시코 쁘에블라 신학교에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현지인 목회 자들에게 바른 성경관 및 창조 진리와 함께 선명한 복음이 전 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거 작거 -설치류는 언제나 설치류였다.





구나 설치목을 대표하는 호저, 비버, 쥐, 다람쥐, 그리고 생쥐들을 익 숙하게 알고 있다. 동물학자들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자라는 위 아래 한쌍의 앞니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다. 포유류의 40퍼센트 이상 (약 1,700종)은 설치류이다.

그것들은 화석 기록에서 설치류로서 갑자기 나타난다. 그것들이 설치류가 아 닌 다른 조상과 연결될 수 있는 단서를 추적할 수 없다. 설치류의 화석은 비교적 흔하지만, 그것들은 진화론이 기대하는 점진적 진보를 보여주지 않는다. 고생물 학자 마이클 벤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치류의 계통발생 (진화론적 역사)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다." 에드윈 콜버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설치류 화석을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 중 하나인 A.E. Wood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치류의 계통 및 분류의 현재 상태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분류 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설치류의 조상으로서 가장 최근에 제시된 것들 중 하나는 아시아의 제 3기층 에서 나온 유리마일리대 (Eurymylidae)이다. 또, 최근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너 무 특수화 되었고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 최근의 지층에서 나오긴 하였지만, 히 오미스 (Heomys)라고 불리는 생물이 설치류의 조상일지 모른다고 제안했다. 마투티니아 (Matutinia), 롬보마일러스 (Rhombomylus), 그리고 유리마일러스 (Eurymylus)와 같은 다른 유리마일리드들은 설치류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지만, 삼촌벌이 된다고 한다.

대홍수 이전, 그리고 아마도 이후에도, 설치류들은 매우 크게 성장했다. 2000년, 과학자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멸종된 설치류인 포베로미스 (Phoberomys)를 발견했 다. 마이티 마우스 혹은 랫질라 (Ratzilla)라는 별명을 가진 이 동물의 무게는 ½ 톤 이상 (1,500lb혹은 700kg)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가장 큰 설치류는 카피바 라이며 무게는 약 150파운드 정도 나간다. 포베로미스에 관하여 벤튼은 다음과 같 이 말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안개낀 날 그것 을 멀리서 보았다면, 그것은 설치류가 아닌 버팔로처럼 보였을 것이다."

가장 커다랗다고 알려져 있는 설치류는 남미에서 발견되었고 멸종된 조세포아르 티가시아 모네시(Josephoartigasia monesi)이다. 그것의 무게는 2,200 파운드에서 1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에서도 8피트 이상 자라고 220 파운드(100kg) 정도, 즉 현대의 검은 곰 정도인 거대한 비버. 캐스토로이즈(Castoroides)가 존재했다. 그것 은 앞니의 길이는 6인치보다 약간 모자랐다.

생쥐 크기의 백퍼센트 설치류의 화석 역시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진화론자들에 의해 "4천 백만년" 이라는 연대가 부여되었으며, 이는 진화론자인 대 런 크로프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했다. "이것은 남미 대륙의 첫 번째 설치류의 연대를 아주 먼 과거로 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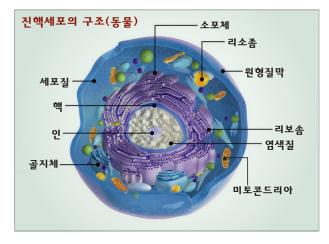
창조론자들은 그 극단적인 연대에 대한 공개적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명백한 (실제 화석 증거와 부합되는) 주장을 한다: 설치류들은 언제나 설치류였으며 - 약 6.000년 전 6일째 되던 날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Sherwin, F. 2012. Big or Small—Rodents Have Always Been Rodents. Acts & Facts. 41 (7): 17. 번역: 이충현



可证 化混号 "날"의 의괴가 工设刊 完起 社 のトリュトコ 子ななした るトスルト 什么是 叫个子起计

원핵세포가 진화해서 진핵세포가 되었다?



진핵세포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세균(박테리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 및 균류 를 이루는 세포 형태이다. 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원핵세포에 비해 진핵세포는 10배 정도 크고, 세포 내부에 이중막으로 분리된 다양한 소기관들을 가진다. 이런점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원시적인 원핵세포로부터 진화

되어 진핵세포가 되었다고 여긴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식물세포의 경우), 활면소포체, 조면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등은 모두 원핵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다. 이들은 이중막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세포질을 통해 다른 기관들과 매우 긴밀히 정보와 물질을 교환한다. 이들은 생명현상에 필요한 수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변형시키고, 수송하면서 거대한 공업도시와 같이 일한다. 그렇다면, 이런 기관들이 정말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과학 교과서는 진핵세포의 기원에 관해, 원핵세포의 막이 안쪽으로 주름잡히듯 접히는 현상에 의해 소포체와 골지체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세포내공생설이란 것으로 설명한다.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이 보다 커다란 혐기성 세균 안으로 들어가서 공생관계로 살게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는 것이 다. 거기에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감염되어 공생하면서 엽록체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1]

이런 주장을 하는 마굴리스(Lynn Margulis)는 그 근거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원핵세포(세균)와 비슷하게 RNA, DNA 및 리보솜을 적은 양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 한다. 또, 원핵세포가 이분법으로 번식하듯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도 스스로 복제해 서 번식한다는 점을 꼽는다. 이러한 설명은 현재 진핵세포의 기원에 대한 주류 이론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유사성을 증거로 하여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의 진화를 전개시키기에는 크나 큰 무리가 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원핵세포에서는 세포질에서 DNA복제 및 단백질 합성 과정이 개방된 상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진핵세포에서는 훨씬 구조화된 방식으로 분담되는데, DNA로부터 RNA를 합성하는 것은 핵 안에서, 그 RNA의 명령에 의한 단백질 합성은 핵 밖 리보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이 유전정보를 핵 안과 밖으로 오고가게 바꾸었단 말인가?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엄청난 유전 정보를 기술적으로 접어 (folding) 핵이라는 특수 공간에 모을 수 있어야하는데, 핵이라는 기관 자체는 또 어떻게 저절로 생겼단 말인가?

그 뿐 아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메카니즘은 매우 복잡한데, 무려매 초 1000만개 가량의 ATP를 생산해내기위해 단계적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이 모든 합성과 분해 및 전자전달 등의 과정에는 각 단계에 맞는 효소를 필요로 한다. 게다가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들을 작동시킬 정확한조절유전자와 신호체계도 필요하다. 원핵세포에 없는이 여러 기관들과 물질들이 다갖춰지고 세포의 크기도 10배 커져야 한다.이 모든 것은 결국 정교한 유전정보가 그만큼 추가되어야 함을 말한다.

진화학계는 위에서 열거한 어떤 과정도 실험적으로 입증한 예가 없다. 정보공학의 측면에서도 이중막구조,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활면소포체, 조면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등을 생성해낼 어마어마한 유전정보를 무작위적인 방법으로는 배열시킬 수 없다. 그런데, 교과서는 진핵세포가 자연적으로 탄생했다고 말한다.

현재 진핵생물의 화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북아메리카의 지층에서 발견 되는 약 21억 년 전의 녹조 화석이며, 이때 진핵생물이 탄생한 것으로 추정한 다.(중략) 이처럼 진핵 세포가 출현하면서 생물 그 자체로 또는 환경적으로 생 물이 폭발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2]

진화론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복잡한 진핵세포의 구조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이다. 그래서 보다 단순해 보이는 원핵세포들이 먼저 생겨나고 수 억년의 진화과정을 통해 진핵세포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긴 시간이면 될까? 복잡한 정보 생성은 긴 시간이 아닌 고도의 지성을 필요로 한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히 출현했다고 끝없이 쇠뇌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것은 원핵세포는 원핵세포에서 나오고, 진핵세포는 진핵세포를 통해서만나온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원핵세포가 진화하여 진핵세포가 되었다' 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최초의 원핵세포의 자연발생조차 증명해내지 못하는 진화의 한계에 대한 논점 회피일 뿐이다. 증명은 없는데 스토리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 진화론이다. 노휘성 / 과학교사

[1], [2] 안태인 외 11인,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129-131, 2011

なけなひけるけをたべけ

· 간증 / 17차 유학생⁽¹⁾

1/4-1/7, 2016



신학대를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생각과 의문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학자와 교수들도 신빙성 있게 입증할 수 없던 창세기 부 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창세기에 서 들던 의문을 많이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 박현정

체기계적으로 등떠된 첫채값 보이는 진화론이 더 축 라참적이따 참조론은 믿음으로 "따성신"라는 첫으로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서 참조가 더축 라참적이따 오래라 진화론이 "떠성신"이라는 크고 국도한 개니당음을 떤었습니다. - 조전진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자세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 최진호

>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신할 수,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 박인형

정말 은체로운 건 이제 막전하게 성기이 사실이겠거니 믿는 제가 아니라 성기의 또는 말씀이 진리 곧 사실이를 꺼다할았다는 것입니다. - 건제지

> 돌아가 씨들의 사라,들에게 라나님의 돌라우셔을 나누고 잘못된 접을 내고 작고 선교 더 공부라고 얼아가다 신습니다. - 장제한

성경의 지식과 과학의 일상의 지식이 이원화되어있던 중에 큰 의문을 제기 하지 않고 "착한 교회 오빠"로 살아온 이중적이고 혼란해하던 내게 성경과 과학은 온전히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 오병선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6 ACT Schedule

7		
	4/2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4/4	창조과학그룹스터디 (이재만)
	4/5-12	창조과학탐사 (서울충신교회), 이재만
	4/25-27	창조과학탐사 (동부사랑의교회), 이재만
	4/25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휘성)
	5/2-10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5/13-19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14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휘성)
	5/19-26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28-30	창조과학탐사 (ANC온누리교회), 이재만
	5/31-6/8	창조과학탐사 (전주동은교회), 이재만
	Ular Uran	
	6/8-13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교수), 이재만
	6/20-23	창조과학탐사 (예수인교회EM), 김선욱
	6/22-29	창 <mark>조과학탐사 (횃불트리니티 CEO스쿨), 이재만</mark>
	6/25-27	창조과학탐사 (KIBI America), 김낙경
	7/3-10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이재만
	7/14-20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교수), 이재만
	7/21-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재만
	7/26-29	창조과학탐사 (전주목원교회), 이재만
	7/30-8/4	창조과학탐사 (크리스천언론기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 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